

발행일_ 2016. 06. 30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계문사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대학 재학 및 졸업 청년을 중심으로

김지경 | 연구위원 jkkim@nypi.re.kr

요 약¹⁾

-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함.
 - 19세~29세의 연령을 횡축으로, 현재 상태를 종축으로 설문조사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총 36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 설문조사 : 재학생 1,000명(25세 미만 600명+25세 이상 400명), 졸업생 1,000명(미취업자 500명+취업자 500명)
 - ※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총 36명(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각 12인)
- 실태조사 결과, 20대 청년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이행(transition) 단계의 세분화 및 각 단계에서의 이행지체 장기화를 발견. 아울러 20대 청년들이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청년 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과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목표의 수립, 그리고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과제를 제안함.

1) 본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고유과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1. 20대 청년 대상 실태조사의 주요 발견

1. 상태에 따른 하위집단별 심리·정서특성

▶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 등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졸업유예생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졸업미취업자가 자존감과 긍정미래관의 수준이 20대 집단 내에서 가장 낮고,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수준이 졸업유예생과 더불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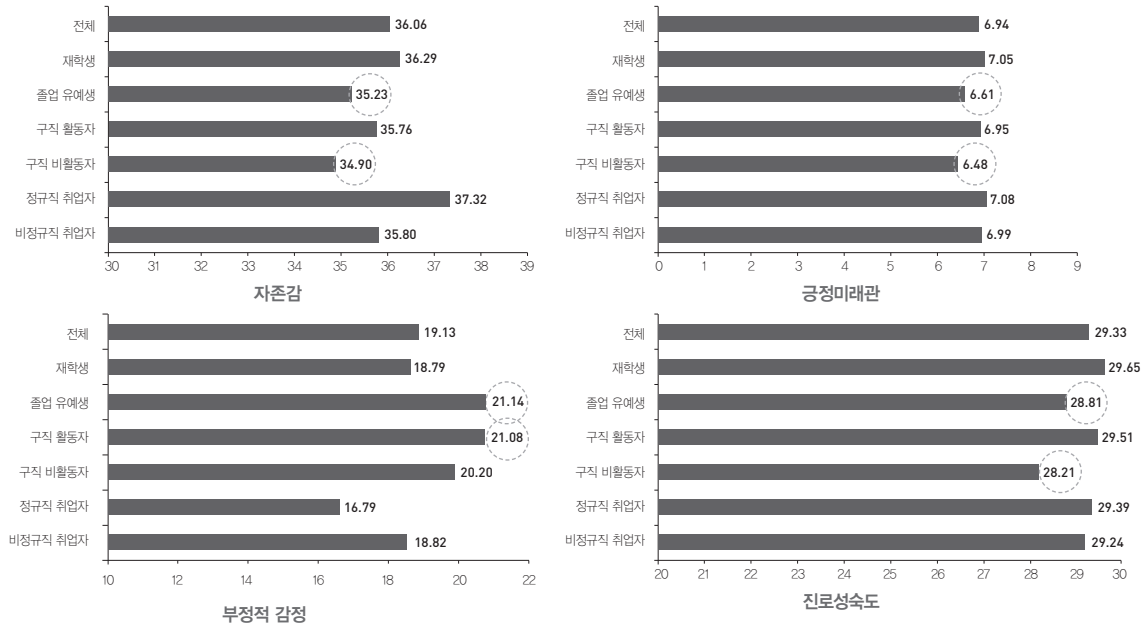


그림 1 상태에 따른 심리·정서 특성 비교

▶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자존감이 급격하게 낮은 수치로 하락함이 발견되고, 부정적 감정과 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남.

— 유럽연합(EU)의 “Youth Guarantee Scheme”과 같이 상태 지속기간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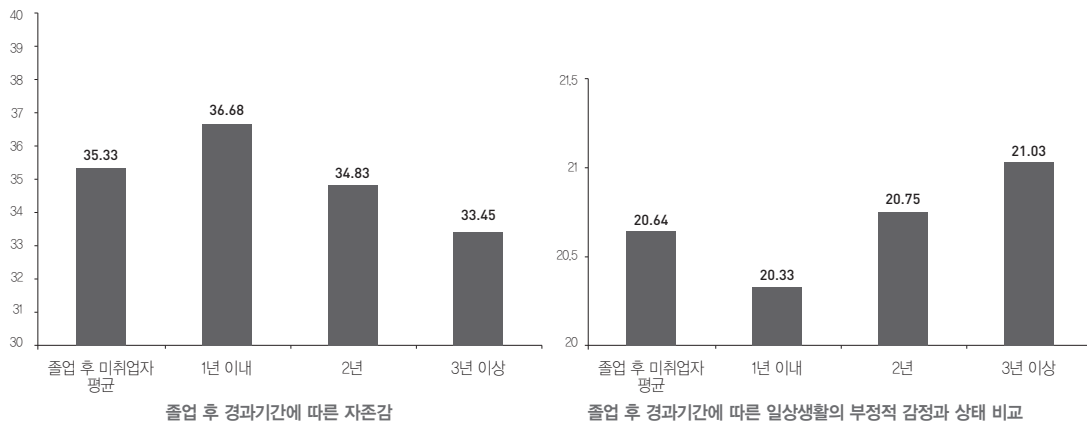


그림 2 졸업미취업자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존감과 일상생활의 부정적 감정·상태

2. 대학생할 및 학자금 부담

- ▶ 20대 청년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은 ‘학벌사회’와 ‘취업공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학 1~2학년 시기의 ‘반수’, ‘편입’, ‘대학중퇴’를 시도하게 하고, ‘휴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상(상경)계열로 집중되고 있는 복수전공의 선택 현상에는 서울지역 인문계열 및 교육계열 여학생들이 쏠려 있음이 확인됨.
- ▶ 서울지역 인문계열, 사회계열 졸업미취업자 집단에서 졸업유예 경험률이 높고, 졸업유예기간 또한 길어지며, 재학 중 복수전공, 휴학, 인턴, 교외학습활동의 경험이 졸업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 ▶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학금수혜총액이 많을수록 생활비대출 총액이 많음.
 - 기존의 장학금지원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전액 장학금으로의 선별적 증액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만, 학업에 높은 수준으로 방해가 되는 장시간 근로는 등록금 총당이나 대출상환을 위해 많은 소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되어 있음.
 -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의 확대 필요

3. 졸업 전 후 취업준비와 구직경험

- ▶ 조사 대상 20대 청년들의 16.1%가 인턴 경험이 있고, 졸업취업자의 인턴 경험률(29.2%)이 졸업미취업자(18.2%)나 졸업유예생(22.1%)에 비해 높음.
 - ▶ 인턴 유경험자들은 평균 1.36회, 6.33개월 경험이 있으며, 졸업취업자의 경우 평균 1.45회, 7.7개월의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인턴 경험에 대한 20대 청년들은 취업에의 도움(5.24점/10점)보다 진로결정에 더 큰 도움(6.37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재학 중 및 졸업 후 시기 모두에 인턴 경험을 한 이들은 진로결정에 절대적으로 도움(9/10점)이 되며, 취업에도 도움(7.4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

표 1 인턴 경험의 진로결정 및 취업에의 도움정도

(단위: 점)

구분		도움정도	
		진로결정	취업
전체 평균		6.37(2.4)	5.24(2.3)
참여시기	재학 중	6.45(2.4)	5.27(2.2)
	재학 중 + 졸업 후	9.00(1.0)	7.40(1.1)
	졸업 후	5.14(2.7)	4.48(2.8)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종합해보면,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된 취업 기회라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빚어지는 경쟁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요건의 상승의 문제도 주된 어려움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임.

▶ 초-중-고-대학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자기탐색” 기회의 부족과 자기탐색 시간이 부재하였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며, 이에 따라 대학 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4. 졸업 후 취업경험

▶ 졸업자의 취업경험률은 60.8%이고, 졸업 후 평균 1.59회의 취업경험을 가지나, 졸업자 10명 중 4명은 졸업 후 평균 1.23년 동안 취업경험이 전혀 없음.

▶ 취업한 첫 일자리에서 조사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58.0%수준임.

▶ 첫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이직의 주된 사유가 되는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나 고용만료의 사유이지만, 20대 청년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유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비전 부재’로 드러남.

–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초기 정착과 생애 삶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접근 또한 필요하며,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20대 청년들은 ‘경제적 필요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임.

▶ 비정규직 취업을 ‘정규직 취업 시 공백 줄이기’ 등 징검다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비정규직의 ‘직무몰입도’는 정규직(4.5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3.5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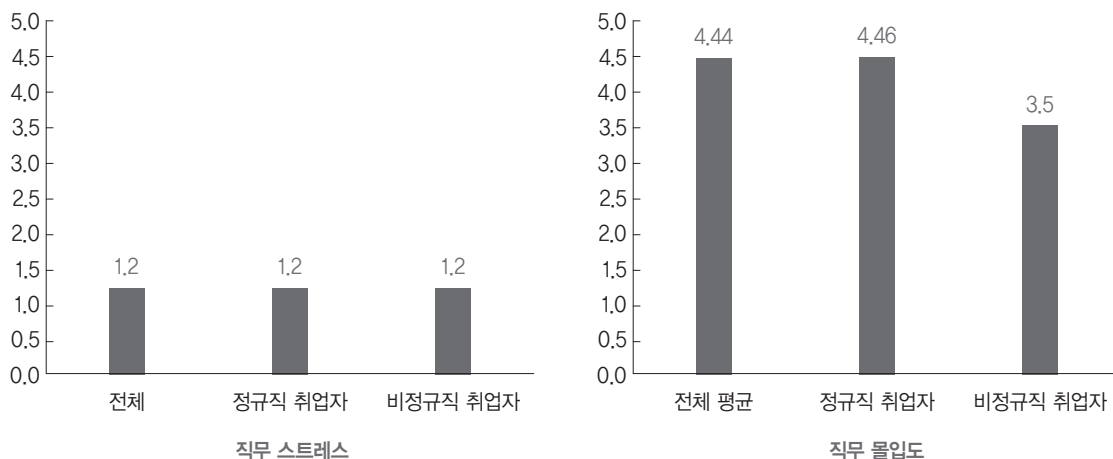


그림 3 ————— 졸업 후 취업자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도 비교

▶ 장시간 근로, 높은 업무스트레스,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발전에 대해 탐색수준이 높은 20대 취업 청년들이 이직 가능성이 높음.

▶ 고용의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의 수준은 이직준비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II. 20대 청년 지원정책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

1. 20대 청년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 ▶ 20대 청년 집단이 연령보다는 현재 상태(재학생 vs 졸업생, 취업자 vs 미취업자, 구직활동자 vs 비활동자, 정규직 vs 비정규직)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 분화 상태임.
 - ▶ 여기에 부모소득과 같은 계층의 기준, 서울 등 지역, 그리고 국·공립대학 등 대학유형까지 고려하면 20대 청년을 둘러싼 정책 이슈별로 이들 집단의 일명 '쪼개짐'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 20대 청년 집단이 다 분화되었다는 것은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을 접근함에 있어 이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정책이슈별 대상자 설정에 집단 내 이질성과 그 이질성을 나타내는 분류의 기준을 면밀하게 살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 20대 청년들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다 분화되었다 할지라도 세분화된 집단 간의 차이의 '이질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세분화된 상태의 하위 집단들 속에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 재학생 중 졸업유예생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졸업미취업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상태에 있다는 상태 동질성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에 대한 인식, 자존감, 긍정미래관 등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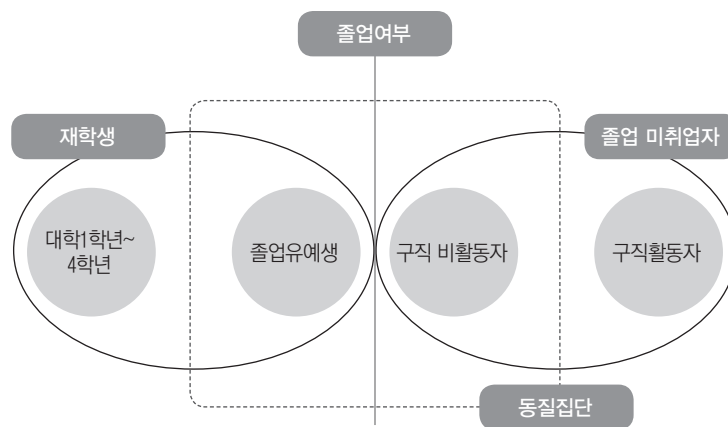


그림 4 ————— 20대 청년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질 집단

2.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 '대학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의 단선적 이행 경로를 경험했던 기존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행의 지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고착화된 상태임.
 - ▶ 대학입학과 동시에 반수와 편입, 휴학, 대학중퇴 등으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이행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졸업시기를 미루는 졸업유예가 사회진출로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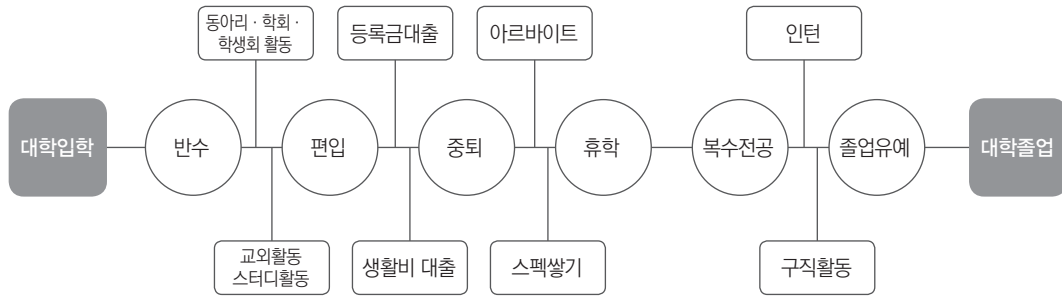


그림 5 —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한 장기간의 취업준비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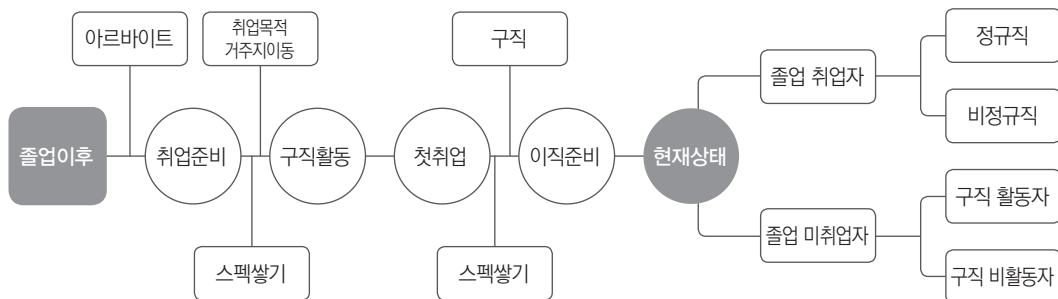


그림 6 — 졸업 후 현재 상태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과거와는 달리, 이행의 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속속 드러남.

▶ 단선적 구조를 가정한다면 ‘취업을 상승’ 만이 고려되어도 무리가 없지만, 지체되는 이행과정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의 문제만이 아닌, 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각 분야에서 개별적 대응이 아닌,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3.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 20대 청년들이 기존 세대들과는 달리, 경쟁과 성취 중심의 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부인할 수 없다면, 20대 청년이 갖는 개인과 개인의 성취 중심의 가치관을 기존 세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아야 함.

▶ 기존의 조직과 조직 내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 노동시장 안과 밖을 넘나들며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

▶ 20대 청년들의 생애자립기반의 마련과 안착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들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질서와 기존 세대의 필요와 판단으로 설계된 청년정책도 이제는 청년 친화적인(Youth Friendly)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Ⅲ. 20대 청년 지원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

1. 중장기 정책 추진의 비전 설정

- ▶ 20대 청년 지원정책이 기존의 고용문제 해소에 집중된 ‘경제정책’에 머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 설정이 필요함.

정책 비전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
-------	----------------------------

2.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및 전략 목표

- ▶ 20대 청년 지원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바, 즉 정책 비전을 위하여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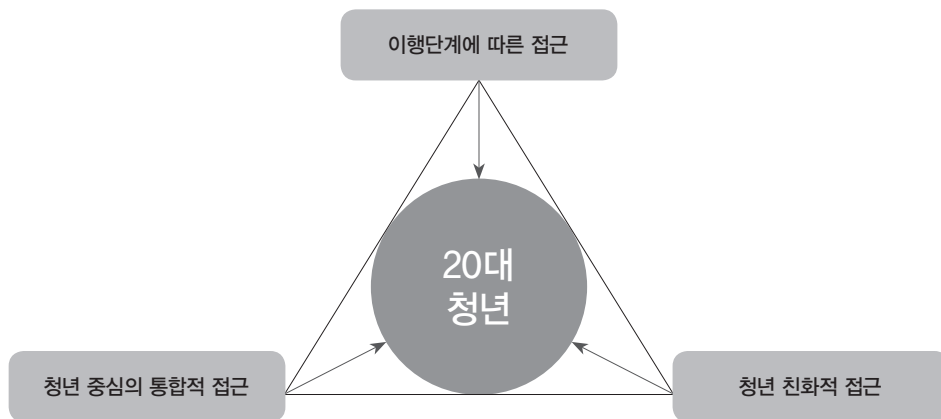


그림 7 정책 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 ▶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 설정

기본방향1	이행단계에 따른 접근	전략목표1	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 비율의 감소
기본방향2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	전략목표2	청년 중심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기본방향3	청년 친화적 접근	전략목표3	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3. 전략 과제

▶ 전략목표1.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 20대 청년의 진로탐색 및 개발 지원 강화
- ▶ 20대 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강화
- ▶ 노동시장 이행 취약집단 지원 강화 및 발굴 확대

▶ 전략목표2.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 20대 청년정책 기획·조정·통합 추진의 근거법률 마련
- ▶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의 추진 주체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전략목표3.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 20대 청년 당사자의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예의 참여 확대
- ▶ 20대 청년 친화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보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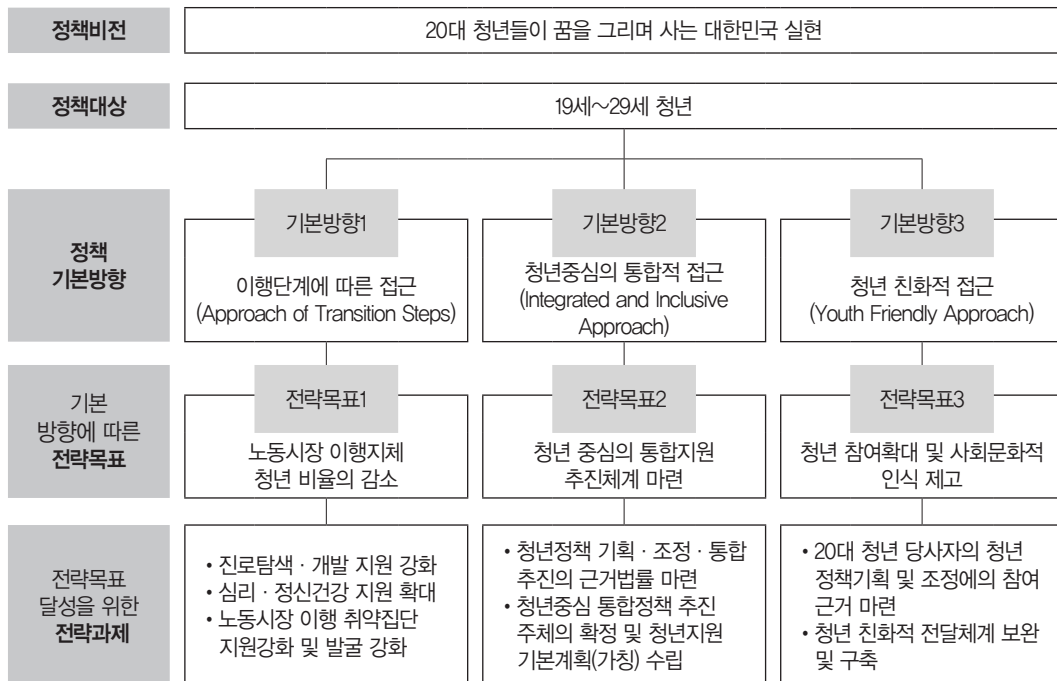


그림 8 —————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의 기본 틀